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불가리아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불가리아(The Republic of Bulgaria)
면적	110,370 km ² (자료원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figures/living_en#size/ 2022년 9월 기준)
수도	소피아(Sofia)
민족(인종)	
언어	불가리아어
종교	불가리아 정교(76%), 이슬람교(10%), 카톨릭(0.8%), 기타(0.2%), 무교(4.7%) 등
기후	○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5도이다. ○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기후이다. ○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이 내리고 기온이 더 낮으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더운 날씨가 적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겨울은 -5~5도, 여름은 26~30도 내외의 기온대를 유지하는 편이다.
국가원수	○ (대통령) Rumen Radev - 2017년 1월 제 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불가리아 대통령 임기는 통상 5년) - 2021년 11월 대선에서 재승리하여 2022년 1월부터 제 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까지 이다. ○ (총리) Boyko Borisov(예정) (4차 총선 결과, GERB가 24.48%의 득표율로 1야당으로 연립 정부 수립의 우선권 획득) - 조기 총선 (2022년 10월 2일 시행) 결과,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4.48% 득표하여 1야당이 되었으며, 연립 정부 수립 후 원칙적으로 1야당의 당수가 총리가 될 예정. - 연립 정부 수립 및 국정 운영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 연립 정부 수립에 실패할 경우, 2야당이 수립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그 후 3야당에서도 수립에 실패할 경우 재 총선이 실시됨. ○ 기타 - 정부형태 : 의회 민주주의제(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 정부성향 : 임시 정부 (총선이 마무리 되었으나, 연립 정부 수립 전) - 주요정당 : GERB(1야당),PP,(2야당) * GERB는 불가리아어 정당명인 'Граждани за Европейско Развитие на България'(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의 약자 * PP는 불가리아어 정당명인 'Продължаваме промяната'(We continue the Change)'의 약자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90-03-23 (자료원 : 불가리아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0-11-15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800000054&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4-04-06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70000005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1994-08-13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500000935&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1995-02-23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064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95-06-22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800000815&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1996-06-10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600000513&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불가리아의 EU가입에 따른 2007-01-01부 협정 종료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2005-11-24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00000040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06-11-16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029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009-02-23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1700000452&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2010-02-11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130000002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0-03-01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411210000003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2010-04-08	http://treatyweb.mof a.go.kr/JobGuide.do? GENSOL_P_KEY=Svc_ BSC_DETL&GENSOL_ M_KEY=Svc_BSC_DET L_1100&GENSOL_AC TIONTYPE_CD=ATW0 0_10&MENU_ID=null &SYSTEM_ID=null&T OPIC_ID=null&CONT_ ID=20141120000004 60&CONT_SID=0001 &TITLE_YN=N&BUTT ON_YN=N&PAPERSET _OPTION=0&CACHE_ PREID=ALL&ORG_YN =Y#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010-04-08	http://treatyweb.mof a.go.kr/JobGuide.do? GENSOL_P_KEY=Svc_ BSC_DETL&GENSOL_ M_KEY=Svc_BSC_DET L_1100&GENSOL_AC TIONTYPE_CD=ATW0 0_10&MENU_ID=null &SYSTEM_ID=null&T OPIC_ID=null&CONT_ ID=20141120000004 82&CONT_SID=0001 &TITLE_YN=N&BUTT ON_YN=N&PAPERSET _OPTION=0&CACHE_ PREID=ALL&ORG_YN =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 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2-01-07	http://treatyweb.mof a.go.kr/JobGuide.do? GENSOL_P_KEY=Svc_ BSC_DETL&GENSOL_ M_KEY=Svc_BSC_DET L_1100&GENSOL_AC TIONTYPE_CD=ATW0 0_10&MENU_ID=null &SYSTEM_ID=null&T OPIC_ID=null&CONT_ ID=20141117000004 07&CONT_SID=0001 &TITLE_YN=N&BUTT ON_YN=N&PAPERSET _OPTION=0&CACHE_ PREID=ALL&ORG_YN =Y#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2015-08-25	http://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1506160000007&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종료 : 2019-08-25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	2022-06-01	https://treatyweb.mofa.go.kr/JobGuide.do?GENSOL_P_KEY=Svc_BSC_DETL&GENSOL_M_KEY=Svc_BSC_DETL_1100&GENSOL_ACTIONTYPE_CD=ATW00_10&MENU_ID=null&SYSTEM_ID=null&TOPIC_ID=null&CONT_ID=202204050000001&CONT_SID=0001&TITLE_YN=N&BUTTON_YN=N&PAPERSET_OPTION=0&CACHE_PREID=ALL&ORG_YN=Y#	

한국교민 수

256 명 (자료원 : 2021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국과 불가리아는 1990년 3월 23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2015년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속적인 주요인사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양국은 1990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7회의 대통령/총리급 교류(방불 3회, 방한 4회)를 진행했다.

* (한국→불가리아) 한명숙 전 총리(2006), 김황식 전 총리(2011), 이낙연 전 총리(2017)

* (불가리아→한국) 젤레프 전 대통령(1995), 파르바노프 전 대통령(2009), 플레브넬리에프 전 대통령(2015), 보리소프 전 총리(2019)

특히, 2017년 이낙연 전 총리의 불가리아 방문을 기점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 중에 있는데, 그 결과, 2018년에는 한-불

비즈니스 포럼과 에너지 협력 포럼이 개최됐으며, 양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아가, 2019년에는 보이코 보리소프 전 총리가 불가리아 총리로선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방한 기간 보리소프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한국 정상을 만나 양국 간 무역, 투자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0년은 한국-불가리아 수교 수립 30주년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행사 다수가 취소되었고, 대신 2020년 3월 31일 양국 정상(문재인 전 대통령과 보리소프 전 총리)은 유선 통화를 통해 수교 30주년 축하, 코로나 위기 공동 극복, 향후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불가리아는 2021년 4월 총선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하지 못하여 11월까지 임시정부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11월 3차 총선 이후,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PP)'당 소속인 Kiril Petkov 총리가 인선 되면서 정식 정부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미흡과 에너지 위기로 인하여 의회의 내각 불신임이 의결되면서 정부가 해산되었고, 연립 정부 수립에 실패했다. 2022년 10월 2일에 새로운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8월 2일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한 Galab Donev 총리가 임시적으로 과도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1) 무역

2021년 한국의 對 불가리아 수출은 약 1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 수입은 약 4억 3,600만 달러로 109.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약 6억 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7% 증가했으나, 무역 수지는 한국 기준 2억 6,900만 달러 적자로 2018년 이후 4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 기준 對 불가리아 무역수지 현황: (2018) -500만 달러 → (2019) -8,900만 달러 → (2020) -5,100만 달러 → (2021) -2억 6,900만 달러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에 합성수지(4,000만 달러), 승용차(2,800만 달러), 폴리에스테르섬유(1,100만 달러) 등을 수출했으며, 곡류(1억 1,700만 달러), 사료(1억 1,500만 달러), 동괴및스크랩(3,800만 달러) 등을 수입했다.

2) 투자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누적 투자액(2억 3,000만 달러)의 63.5%가 '전기/가스 공급업'인데, 주로 태양광 발전 관련 투자로 2010년대 초반 불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관련된 한국의 투자 진출이 활발했으며, 2020년 해당 분야에서 4백만 달러의 추가 투자 진출이 있었다. 반대로, 2022년 상반기 기준 불가리아의 對 한국 누적 투자액은 1.44백만 달러, 투자 건수는 9건(제조업 1건/ 서비스업 8건)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3) 기타 경제협력 이슈

한국과 불가리아는 2017년 이낙연 전 총리의 방불을 계기로 한국-불가리아 상공회의소를 출범했다. 2019년에는 보리소프 전 총리의 방한과 연계하여 불가리아 경제 사절단이 방한, 대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무역/투자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으며, KOTRA는 불가리아 투자청(IBA), 중소기업청(BSMEPA)과 투자/무역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은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문화

1) 한국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현대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소피아 대학에는 한국학과가 있으며, 플로브디프 대학, 플로브디프 의과대학, 바르나 대학, 벨리코터르노브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가 있다. 한국어 과정을 교육하는 초, 중, 고등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18번 학교는 전 학년 대상으로 한국어반을 정규로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19번 학교, 138번 학교, 바르나 제1외국어고등학교, 부르가스 6개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불가리아 대사관은 18번 공립 학교 내 '디지털 한국어 학습센터' 개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소피아대학 주관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TOPIK'이 실시되고 있으며, 연평균 응시자는 50~100명 내외이다. 또한,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주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등 불가리아인의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는 행사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 태권도

태권도를 중심으로 체육 분야 내에서도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 태권도 협회가 매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 라무스 국제 태권도 대회', '불가리아 태권도 월드 챔피언십' 등을 개최하였다.

3) 한식

불가리아의 한류는 현지인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피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이 몇 개 있으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비빔밥, 양념치킨과 같은 한식 메뉴를 판매하거나 고추장, 불고기 양념, 김치와 같은 한국적인 식재료를 기존 요리에 가미한 퓨전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다.

과거 한식당에서 솥인솥 방식으로 소량 유통되던 라면, 과자 등 한국 식품들이 Fantastico 등 불가리아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이후 소피아 내 몇 개의 한국 식품 전용 매장이 개업하기도 했다. 또한,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은 한식 콘테스트, 한식 시연회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홍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7	4	-4.4	4.2	
명목GDP (십억\$)	66.43	68.92	70	80.33	
1인당 GDP (PPP, \$)	22,889.9	24,409.4	23,739.1	25,914.2	
1인당 명목 GDP (\$)	9,489.6	9,914.3	10,119.9	11,683.9	
정부부채 (% of GDP)	20.1	18.3	23.3	23.8	
물가상승률 (%)	2.6	2.5	1.2	2.8	
실업률 (%)	5.3	4.3	5.2	5.3	
수출액 (백만\$)	32,777	32,602	31,125	40,569	
수입액 (백만\$)	35,974	35,858	33,340	44,469	
무역수지 (백만\$)	-3,197	-3,256	-2,215	-3,900	-
외환 보유고 (백만\$)	27,044.89	25,919.57	35,377.55	36,798.32	
이자율 (%)	0	0	0	0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71	1.74	1.59	1.73	

<자료원 : IMF, World Bank(외환보유고), 불가리아 중앙은행(이자율, 환율), EIU(수입액, 수출액)>

나. 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2020년 불가리아는 유럽 내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4.4%(IMF 기준)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유럽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 등 불가리아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EU 역내 교역이 정상화됐으며, 정부 방역 정책 완화 등에 따른 소비, 투자의 증가로 2021년은 4.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2) 물가상승률

코로나에 따른 유럽 경기 위축으로 2020년 불가리아의 물가 상승률은 1.2%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불가리아 내 전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불가리아는 2021년 2.8%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공급망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리아의 물가는 2022년 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7.7%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난 24년 중 가장 높은 연 물가 상승률이다.

3) 실업률

꾸준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17~2019년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현지 주요 기업의 대량 해고로 2020년 실업률은 5.2%로 다시 증가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재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사업 불확실성을 높이는 다양한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21년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5.3%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실업률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여 약 4.7%를 기록하고 있다.

4) 환율

불가리아는 2002년부터는 레바(BGN으로 표기)를 유로에 '1유로=1.95583레바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유로존 이전 단계인 ERM II(Exchange Rate Mechanism II) 가입에 성공했으며, 빠르면 2023~2024년경 유로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로 불가리아는 ERM II 가입 이후 레바와 유로 간의 환율을 2년 이상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유로존에 가입할 자격(마스트리히트 기준)이 주어지게 된다.

5) 국가신용도

2019년 5월, Standard & Poor's는 불가리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A-3에서 BBB/A-2로 상향했으며 2022년 5월 기준으로도 해당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불가리아가 성공적으로 ERM II에 가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도 상승이 기대됐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정부 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추가적인 신용도 상승은 없었다.

다. 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고, 2021~2027년 불가리아에 배정된 EU기금 집행 본격화 등으로 2022년 불가리아의 경제성장률은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파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총공급 감소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IMF를 포함한 주요 경제 기관들은 불가리아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1%p 낮은 3%로 전망하고 있다.

* IMF의 2022~2025년 기간 불가리아 경제 성장 전망: (2022)3.2% → (2023)4.5% → (2024)4.2% → (2025)3.0%

2) 물가상승률

코로나에 따른 유럽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불가리아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분기까지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불가리아의 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기준,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17.7%에 달하였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 문제 심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가스 공급 차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겨울의 물가 상승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2021~2022년 불가리아 분기 별 물가 상승 추이(불가리아 중앙은행, 전년 동기 대비): (21.8월)3.7% → (21.12월)7.8% → (22.4월) 14.4% → (22.8월) 17.7%

3) 실업률

2021년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 발 인플레이션 등의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지 주요 기업의 고용 회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4.7% 대로의 회복되었다.

4) 환율

불가리아는 2002년부터는 레바 (BGN으로 표기)를 유로에 '1유로=1.95583레바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불가리아가 유로존 이전 단계인 ERM II(Exchange Rate Mechanism II) 가입에 성공함에 따라 2023~2024년 유로존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EU는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조건으로 부정부패 척결, 사법 체계 정비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실제 유로존 가입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5) 국가신용도

2019년 5월, Standard & Poor's는 불가리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 BBB-/A-3에서 BBB/A-2로 상향했으며 2022년 5월 기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제 회복 및 재정 건전성 확대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우, 혹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향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442,179,813
2	이탈리아	3,065,690,720
3	루마니아	2,915,562,688
4	터키	2,723,578,989
5	그리스	2,266,936,056
6	프랑스	1,395,229,069
7	벨기에	1,180,942,974
8	중화인민공화국	1,068,672,846
9	네덜란드	987,685,304
10	Areas, nes	939,239,57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528,413,930
2	루마니아	2,980,298,160
3	이탈리아	2,610,645,132
4	터키	2,456,630,470
5	그리스	2,312,464,548
6	프랑스	1,311,043,964
7	중화인민공화국	1,072,395,709
8	벨기에	995,580,399
9	스페인	984,711,933

10	네덜란드	977,098,515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06,460,913
2	루마니아	2,474,685,221
3	이탈리아	2,226,562,953
4	터키	1,949,760,357
5	중화인민공화국	1,366,779,437
6	그리스	1,245,136,372
7	벨기에	1,152,620,186
8	프랑스	1,091,955,750
9	미국	859,312,983
10	네덜란드	802,723,87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08,861,699
2	러시아	3,815,973,093
3	이탈리아	2,956,083,173
4	루마니아	2,617,486,073
5	터키	2,384,967,316
6	스페인	1,788,783,556
7	그리스	1,658,972,307
8	중화인민공화국	1,571,632,439
9	네덜란드	1,464,869,242
10	헝가리	1,348,612,60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583,208,272
2	러시아	3,916,800,636
3	이탈리아	2,838,621,746
4	루마니아	2,708,062,342
5	터키	2,484,480,484
6	그리스	1,744,323,907
7	중화인민공화국	1,717,851,175
8	스페인	1,457,726,691
9	네덜란드	1,388,515,317
10	헝가리	1,359,285,62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855,499,712
2	터키	2,310,721,048
3	이탈리아	2,199,579,750
4	루마니아	1,923,701,816
5	중화인민공화국	1,532,363,580
6	헝가리	1,218,125,181
7	폴란드	1,206,550,128
8	네덜란드	1,173,688,755
9	그리스	981,677,347
10	체코	956,434,51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97,751,765
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256,512,930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61,834,179
4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067,495,095
5	271019	기타	1,038,205,204
6	100199	기타	857,297,108
7	300490	기타	771,107,114
8	271600	전기에너지	622,496,478
9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83,877,351
10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58,736,97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246,746,511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95,269,211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50,886,713
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011,268,716
5	100199	기타	931,688,650
6	300490	기타	796,383,559
7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782,131,847
8	261690	기타	587,116,467
9	271600	전기에너지	533,444,699
10	853890	기타	515,028,91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211,952,158
2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1,040,228,787

3	711299	기타	613,243,330
4	300490	기타	554,238,151
5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05,976,791
6	100199	기타	502,625,503
7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98,950,768
8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479,946,627
9	100590	기타	465,718,912
10	853890	기타	374,084,613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147,956,069
2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073,982,88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63,568,489
4	300490	기타	1,036,465,175
5	271121	천연가스	721,646,646
6	271019	기타	630,023,159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98,146,177
8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56,166,017
9	853890	기타	322,605,043
10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12,626,18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485,103,307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956,237,356
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602,501,354

4	300490	기타	1,017,518,351
5	271121	천연가스	688,915,268
6	271019	기타	633,016,10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3,630,501
8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17,250,110
9	853890	기타	328,485,866
10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88,243,46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911,724,135
2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771,533,620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15,138,378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322,015,087
5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02,638,553
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7,168,898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33,405,474
8	271019	기타	233,353,758
9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212,824,843
10	853890	기타	204,684,65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74	179	-5
2019	166	255	-89
2020	157	209	-52
2021	167	436	-269
2022	113	221	-10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40	0	39
2	7411	승용차	28	0	28
3	4111	폴리에스테일섬유	11	0	11
4	3203	타이어	6	0	5
5	2273	화장품	5	0	5
6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1	0	1
7	7419	기타자동차	0	0	0
8	8149	기타전자응용기기	10	0	10
9	8342	연결부품	4	1	2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6	1	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29	0	29
2	7411	승용차	11	0	11
3	4111	폴리에스텔섬유	7	0	7
4	3203	타이어	5	0	5
5	2273	화장품	4	0	4
6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4	0	4
7	7419	기타자동차	3	0	3
8	8149	기타전자응용기기	3	0	3
9	8342	연결부품	3	1	2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3	1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11	곡류	0	117	-118
2	6222	동조가공품	0	34	-35
3	0136	사료	0	115	-115
4	4412	작물제의류	0	24	-25
5	1190	기타금속광물	0	0	0
6	4411	편직제의류	0	10	-10
7	0154	연초류	0	4	-4
8	8425	자동화기기	0	0	-1
9	5113	가방	0	6	-7
10	7512	밸브	0	5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11	곡류	0	48	-48
2	6222	동조가공품	0	29	-29
3	0136	사료	0	27	-27
4	4412	직물제의류	0	18	-18
5	1190	기타금속광물	0	14	-14
6	4411	편직제의류	0	7	-7
7	0154	연초류	0	5	-5
8	8425	자동화기기	0	5	-5
9	5113	가방	0	5	-5
10	7512	밸브	0	5	-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1/US\$백만)	81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5
선정사유	2021년 불가리아의 대한민국 화장품 수입은 5백만 달러로 2017~2021년 기간 연평균 86% 성장		
시장동향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안티에이징 제품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화장품 수입 5위(HS 330499 기준)로 프랑스, 체코, 독일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		

품목명	범용 자동차 A/S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21/US\$백만)	331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 형성, 높은 중고차 비율로 부품 교체 수요 상시 존재		
시장동향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자동차부품 수입 29위(HS 8708 기준)로 독일, 폴란드, 터키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물류 경쟁력 확보 통한 적기 대응이 관건으로 KOTRA 물류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주재국 물류거점 구축 필요		

품목명	라면 등 간편식품		
HS Code	1902.30	수입액('21/US\$백만)	5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4
선정사유	불가리아인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라면 등 한국산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2021년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액은 5백만 달러(HS 190230기준)로 연평균 27% 증가		
경쟁동향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 3위(HS 190230 기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면 제품의 60%가 대형슈퍼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납품 중인 현지 유틸리티 발 굴이 중요		

품목명	의료기기		
HS Code	9018.90	수입액('21/US\$백만)	103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5
선정사유	2021~2027년 기간 EU기금을 활용한 의료기기 프로젝트 다수 발주 기대		
시장동향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으며, 불가리아는 의료기기의 80%를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2021SUS 한국은 불가리아의 의료기기 수입 27위(HS 901890 기준)로 체코, 루마니, 독일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파트너 기업 발굴을 통해 EU 기금을 활용한 의료 분야 공공 조달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품목명	승용차		
HS Code	8703	수입액('21/US\$백만)	1,08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3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을 형성, 가성비 좋은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시장동향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승용차 수입 25위(HS 8703 기준)로 독일, 헝가리, 프랑스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내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 추세로, 가성비와 안전성을 겸비한 한국 중고 LPG 차량 수출		

품목명	공기청정기		
HS Code	8421.39	수입액('21/US\$백만)	3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1/US\$백만)	0.03
선정사유	높은 중고차 사용 비율, 석탄화력발전 등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추세		
시장동향	소득 수준이 높고,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소피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		
경쟁동향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의 공기청정기 수입 31위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서유럽 제품 대비 가성비를 갖춘 제품의 시장진출이 유망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스마트팜
선정사유	불가리아는 한국과 기후 및 농업 여건이 유사하여 한국 스마트팜 기술 수출에 유리

시장동향	EU기금 등을 통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 증가
경쟁동향	불가리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농장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등 시장 형성 중
진출방안	한국의 기술력과 불가리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 EU의 공동 R&D 프로그램 협력 수행

품목명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선정사유	유럽 친환경 정책 강화로 불가리아 내 전기차 등 저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불가리아 내 전기차 충전소는 200여 개 내외로 EU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함
경쟁동향	불가리아는 중국, 서유럽 등에서 들여온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주로 활용 중임
진출방안	Eldrive, EVPoint 등 불가리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키 플레이어와 기술 협력 및 공동 제품 개발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AA(Association 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1999-07-01	* 2017년 개정 협상 시작. 2019 협상 잠정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9-06-30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FTA(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 (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FTA(Free Trade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27	
--------------------------------	-----------------	------------	------------	--

<자료원 :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 EU- ASEAN 개별 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단. 직전 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2021.5.8. 협상 재개 합의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협상: 2019. 4.	
FTA(Free Trade Agreement)	키르기즈스탄	협상 및 법리 검토 완료 (2022년 말까지 번역 및 제출 예상)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완료, 직전협상 2022.6	

<자료원 :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negotiations-and-agreements/>>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 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EU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자재 등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 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 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 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 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 러시아산 석탄, 석유, 목재 수입 금지 (2022년 상반기)

EU 집행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이에 대한 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목재, 원유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다. 원유는 올해 12월부터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고, 목재는 7월부터 수입이 금지, 석탄은 8월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제재의 기한과 품목은 지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化妆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 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제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포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 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 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EU 관세제도 개요>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개 협약중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 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 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격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2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 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2011%20Jan%202022%20.pdf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

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 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불가리아의 주요 무역항구는 불가리아의 동해안인 흑해에 위치한 바르나(Varna)항과 부르가스(Bourgas)항이다. 한국 부산항을 기준으로 바르나 또는 부르가스 항까지 도착에 걸리는 시간은 40~4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2021년 이후 전세계적인 물류난으로 인해 기존 일정대비 1~2달 가량의 물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말 대비 2022년 상반기에는 물류비가 조금 낮아지고, 물류기간이 약간 단축되긴 했으나,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류 상황이 안정화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나, 부르가스에서 수도인 소피아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TIR 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피아까지 보통 6~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 주요 공항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은 수도인 소피아에 위치한 소피아 공항으로 해당 공항은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로 나누어져 있다. 제1터미널은 주로 저가 항공사들과 국내선이 취항하며, 제2터미널은 국제선으로 2007년 불가리아의 EU 가입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소피아 공항은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해외 출국 시에는 주로 제2터미널을 활용한다. 기타 바르나와 부르가스에도 공항도 있으나 대부분 국내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항공 물류 허브인 모스크바 공항 이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물류 지연 등 항공 물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유의사항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물동량이 제한적이라 불가리아 항구(바르나, 부르가스)까지 직접 노선이 없다. 이에 따라, 서유럽의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항구 등에서 1차 선적 화물을 하역 후 다시 불가리아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 재하역/선적으로 인해 화물 운송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세계적인 물류난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물류 지연을 대비하여 충분한 스케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참고사항

불가리아로 제품 운송 시, 바르나 또는 부르가스 항구 이외에 그리스 데살로니키 항구로 화물을 도착 시킨 후, 내륙운송을 통해 불가리아로 운송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란 수입신고서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불가리아에서 수입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불가리아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불가리아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약식통관

불가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송장(AWB), 특사(Courier)발송 송장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불가리아에서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Customs Approved Exporter), CE 인증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는 특정 라이선스 및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 우편통관(EMS)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불가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그리고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 국제우편물(EMS)을 수령하는 장소는 지역 세관이며 세관 내에 EMS 우편물 수령장소가 있다. 보통 세관의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이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 물품검사 및 보류/압류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0%)는 통관절차 시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전문 통관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통관사에 위임을 해 물품을 통관한다.

○ 통관절차 흐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등 제세 납부 → 물품 반출

◦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상품송장(Commercial Invoice)는 통관에 있어 가장 필수서류이다. 그 밖에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증명서, CE 인증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농림부 내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류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가 없을 시 관세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기계류의 통관 시에는 세관에서 사용설명서(manual for operation)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안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품목별 관세율 정보는 Taric consult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관세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전문 통관사를 이용하며, 전문 통관사를 통해 물품 통관에 대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 현지 관세상 컨테이너 1대당 들어가는 통관비는 600~700유로 정도이며, 만약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이 자동차와 같은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1,000유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은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RKAS BULGARIA Ltd

주소	Varna Head Office 54, Osmi Primorski polk Blvd Floor 3, Office 10 9000 Varna
전화번호	+359 52 685 520
이메일	exp.sales@arkasbulgaria.com
홈페이지	http://www.arkasline.com.tr/en/varna___arkas_bulgaria.html
비고	해외전용url

◦ EUROSPED Ltd

주소	1592 Sofia,56 Christopher Columbus blvd.
전화번호	+359 2 919 9191
이메일	logistics@eurosped.bg
홈페이지	http://www.eurosped.bg

◦ MOBILLE Ltd

주소	30, Tsar Simeon I street, 9000 Varna, BULGARIA
전화번호	+359 52 602 713
이메일	office@mobile.bg
홈페이지	http://www.mobile.bg

◦ Vart Ltd

주소	Bulgaria, Varna, South Industrial Area,Odessos PBM Port SA
전화번호	+359 52 696 270
이메일	vart@gmail.com
홈페이지	http://www.vartbg.com

◦ Aksim Ltd

주소	Varna 48 Tsaribrod str., 2nd floor
전화번호	+359 898 75 04 58

이메일	office@aksim.eu
홈페이지	http://www.aksim.eu

◦ UNIMASTERS LOGISTICS PLC

주소	EUROGATE Logistics Park 12 Prodan Tarakchiev Str. BG-1592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52 818 008
이메일	customerhub@unimasters.com
홈페이지	http://www.unimasters.com

◦ ORBIT Ltd

주소	16, Prodan Tarakchiev Str. 1540 Sofia, Airport Are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970 6300
이메일	orbit@orbit.bg
홈페이지	http://www.orbit.bg

◦ Move One

주소	23 Kom Street 1225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892 496 465
이메일	bulgaria@moveoneinc.com
홈페이지	http://www.moveoneinc.com/country-profiles/bulgaria/

◦ Scorpion Shipping

주소	18, Parva Balgarska Armia Str., 1220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926 2816
이메일	bblajev@scorpion-shipping.net
홈페이지	http://scorpion-shipping.net/en/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 우대정책)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명시해놓고 있다. 단, 자연인은 토지 취득이 불가하며,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 없이 취득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2014년부터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모든 경제 활동에 적용되며, 국영 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주식,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에 있어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빈번한 법률 개정, 은행 체제 미확립, 숙련노동자 부족 등은 대불가리아 투자자들에게 불만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자국민 대우와 최혜국 지위)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기하고 있다(자국민 대우). 이 원칙은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적법적 형태에 적용된다. 불가리아가 체결한 상호 협정에서 국제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투자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협정국의 시민이나 법인은 동등한 특혜를 누릴 자격을 갖게 된다(최혜국 지위). 아울러, 불가리아 투자청은 외국인 투자법 및 법률과 관련한 영문 법률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있다.

○ (불리한 법 개정에 대한 법률적 보장)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해 현행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법적 제한을 가할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 이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강제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불가리아 헌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민간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강제 수용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필요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 원칙은 국가 및 지방정부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두 법 모두 강제 수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적절한 보상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는 외국인투자법에 제시돼 있다. 해당 법은 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해결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필요가 있고, 또 동일 지역에 소재한 시장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으로 보상이 될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중에는 소피아 시당국과 감정평가에 의한 환지 사례가 있으며, 도시 개발이나 국토개발 계획에 의해 환지나 수용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법 전문)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법 영문 번역본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 불가리아 투자청 홈페이지 : <https://investbulgaria-virtualoffice.com/home>

투자인센티브

○ (조세감면) 불가리아 정부는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불가리아 정부가 허가한 명단에 포함된 고실업 지역, 즉 불가리아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지자체 실업률이 35%를 넘는 고실업 지역의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사전 및 추후 등록요건과 보고의무가 따른다. 면제/인센티브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의 가액이 7,500만 레바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쟁보호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세제상 인센티브 포함) 합계가 3년 동안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조건 심사에 신축성이 부여된다. 2007년 1월 1일부로 불가리아의 법인 소득세는 10%를 유지하고 있다. 고실업 지역에 투자한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따라 10% 법인소득세의 완전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고실업 지역에서 수행된 생산 활동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세금면제 혜택, △단, 매년 수혜 받은 세금공제액은 세금공제를 요청한 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취득자산은 합병이나 회사재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처분해서는 안 된다. 투자지역이 고실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기 5년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지역이 준비과정에서는 고실업 지역이었다가 투자 개시 이전에 고실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4년간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조금) 불가리아 고용시장에서 청년 및 빈곤층 고용 프로그램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계약 기간(단, 12개월 이내)에 대해 급여와 고용주가 사회보장청과 건강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할 분할 납부금 그리고 전문능력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비용(6개월 이내)을 부담한다.

- 요건: △ 해당인은 에이전시와 고용주 간의 계약을 근거로 고용청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군에 복무한 적이 없는 29세까지의 실업자, △ 작업능력이 저조한 29세까지의 실업자, △ 교육을 완수한 사회기관 출신의 청소년, △ 작업능력이 영구히 미흡한 실업자, △ 3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양부모) 또는 어머니(양모)인 실업자, △ 50세 이상의 여성과 55세 이상의 남성 실업자

- (R&D 지원사업 선정) 불가리아 정부는 특히 High-Technology 및 R&D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R&D 분야는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중 하나이다. 투자 장려법에 따라 첨단 산업기술(High-Tech activities of the industry sector) 분야에 4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A, 2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B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첨단기술(High-tech activities and knowledge based activities of the service sector) 분야의 경우 1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A, 0.5백만 레바 이상 투자시 Class B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우대 프로젝트) 불가리아 투자촉진법에 투자우대 프로젝트(Priority Investment Project)를 별도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을 기준으로 불가리아 정부 내각회의를 통해 우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다. 교육, R&D 분야 프로젝트는 투자 금액의 50%, 일반 제조업 분야는 10%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투자 입지 및 토지 상태 변경을 위한 주 세금(State Tax)면제와 별도 입찰과정 없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 시정부 소유 부동산을 구매 가능하다. 공공, 민간, 대학들간의 파트너십 또한 지원하고 있다.

- (불가리아 투자인센티브 자료)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불가리아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에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가리아 투자 인센티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 불가리아 투자청 홈페이지 : <https://investbulgaria-virtualoffice.com/home>

- * KOTRA는 불가리아 투자청과 투자 진출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투자진출 관련 상세한 인센티브는 불가리아 투자청 투자유치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GDPR로 개인정보 대외공개가 어려워 불가리아 투자청 투자유치 담당자 컨택 정보 필요시 KOTRA 소피아 무역관 문의 요망)

제한 및 금지(업종)

- (제한 분야) 불가리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다. 다만, 무기 제조, 독성물질, 카지노와 같은 사행사업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한과 통제를 받게 된다.

- (외국인 고용 제한) 불가리아는 외국인 고용 쿼터제를 통해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율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고용 쿼터 비율은 전체 직원의 10%였으나, 불가리아의 인구 감소, 인력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로 2018년 5월 23일부터 일반기업은 직원의 20%, 중소기업은 35%까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 (투자 금지) 불가리아에서는 따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가스·전기 공급, 공공운송, 안보, 통신망 서비스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는 당국의 사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카지노 사업 역시 당국으로부터 제한과 감독을 받는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경제부 산하 불가리아 국가산업공단(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NCIZ)를 운영하고 있다. NCIZ는 불가리아 전역 주요 거점 내 10개 산업 공단을 운영 중이며, 2022년 4월 기준 8개 산업 공단이 완공되어 운영 중이며, 2개 산업 공단은 개발 중이다.

◦ 운영 중인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8개)

- Sofia-Bozhurishte Economic Zone, Industrial and Logistic Park - Burgas, Industrial zone Vidin, Free Zone Ruse, Industrial Zone Svilengrad, Industrial Zone Zagore, Transit Trade Zone Varna, Industrial Zone Telish

◦ 개발 중인 산업단지/특별경제구역(2개)

- Varna West Industrial Zone, Industrial park Kardzhali

산업단지

◦ Sofia-Bozhurishte Economic Zone

규모	2,983,692 m2
위치	Sofia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fax) - 홈페이지: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Immediate proximity to major international roads and EU transport corridors. - Sofia City Center - 15 km / Sofia Airport - 23 km - Next to the international road connecting Europe with Turkey - 5 km to a highway bound for Greece - 2 km to a highway bound for Serbia - 30 km to a highway bound for the Black Sea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www.nciz.bg/en/projects/sofia-bozhurishte-economic-zone-58.html

◦ Industrial and Logistic Park - Burgas

규모	238,240 m2
위치	Burgas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Port of Burgas - 4 km - Highway Trakia - 4 km - Burgas Airport - 9 km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and-logistic-park-burgas-66.html

◦ Industrial zone Vidin

규모	308,627 m2
위치	Vidin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On the bank of the Danube river next to Danube Bridge - 2, a freight port, and a ship terminal - Located on two borders - land with Serbia and river with Romania - Junction of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IV and №VI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vidin-59.html

◦ Free Zone Ruse

규모	370,235 m2
위치	Ruse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800 m to the East of Danube Bridge connecting Bulgaria and Romania - Right next to the port of Ruse - the biggest river port in Bulgaria - Junction of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No.VII and No.IX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free-zone-ruse-60.html

○ Svilengrad Economic Zone

규모	70,000 m ² ;
위치	Svilengrad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strategic location, next to the borders with Turkey and Greece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svilengrad-64.html

○ Industrial Zone Zagore

규모	115,000 m ² ;
위치	Stara Zagora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10 km to Trakia highway - On the road Stara Zagora - Burgas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zagore-65.html
----	---

○ Transit Trade Zone Varna

규모	104,000 m2
위치	Varna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nciz.bg/en/projects/transit-trade-zone-varna-67.html

○ Industrial Zone Telish

규모	2,036,638m2
위치	Pleven
임차료	별도 협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 전화: +359 2 8902 902 - 팩스: +359 2 9871 684 (fax) - 홈페이지: www.industrialzones.bg www.nciz.bg - 이메일: office@nciz.bg
비고	○ 지리적 이점 - In immediate proximity to the main road Sofia-Varna - On the main road Sofia-Ruse ○ 산업단지 상세 정보 URL - http://www.nciz.bg/en/projects/industrial-zone-telish-62.html

<자료원 : 불가리아 산업공단(<http://nciz.bg/en/>)>

주요 지역별 여건

○ 불가리아 전반

○ (동서양의 교차지점이자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 불가리아는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중동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서유럽 주요 도시까지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으며, 터키의 경제 수도인 이스탄불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하다.

- (EU 회원국으로 서유럽 시장의 교두보)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서유럽 시장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용이한 편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불가리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원료나 부품 등을 수입 후 재가공하여 서유럽 시장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가리아를 서유럽 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 (교통 인프라 확대로 발칸 반도 내 육로 이동의 거점) 불가리아는 EU 기금을 활용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와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으로의 접근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육로를 통해 터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국경 통과가 필수가 되는 등 불가리아는 점차 발칸반도 내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813.85	1142.61	1717.08	2425.93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330.56	248.61	420.21	203.73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0	3	3	4,029	3	4,02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3	4,029	3	4,02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에스디앤(SDN Company Ltd - Branch in Bulgaria)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해외지사 - 한국남동발전과 50:50 합작투자하여 불가리아 법인인 ASM-RES를 설립 운영 중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태양광 발전
모기업명	에스디앤

○ 한국남동발전(Korea South East Power)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에스디엔과 50:50 합작투자하여 불가리아 법인인 ASM-RES를 설립 운영 중
업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급분야	태양광 발전
모기업명	한국남동발전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불가리아 상법은 외국인의 법인체 설립 또는 기존 법인체의 지분 인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불가리아 상법(Trade Act)에서 정한 법인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불가리아 상법에서 정한 법인의 형태로는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지분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with shares)' 그리고 '△개인사업자(sole traders)'가 있다. 단, 외국인인 개인이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의 무한책임 사원으로 참가하거나 '개인사업자(sole traders)'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내 거주지가 필요하다.

지사

외국의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이 본국의 법에 의거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불가리아에 지사를 등록할 수 있다. 지사는 지방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된다. 외국회사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사는 독립체로 간주하고, 따라서 별도의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사 설립은 외국 회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최소납입 자본금은 없으며 별도의 기업 지배구조를 요하지 않는다. 지사의 자산과 부채는 모기업의 것으로 간주한다.

연락사무소

본국의 법 조항에 따라 영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은 불가리아에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들은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리아 법에서 정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 연락사무소 설립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불가리아 내 법인 설립 전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전 투자 검토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사무소는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며 마케팅,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설립 시 유의 사항 은행이나 보험 영업, 투자 펀드, 관리 회사, 투자 중개업, 특별 사업권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상 기 유형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정부 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지에서 투자 진출 지역 내 부동 산 등을 매입을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한 바, 대부분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나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형태의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편인데,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완료 후 철수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인 청산 절차가 간편한 TAX Entity라는 형태의 법인을 세워 세금 관계 업무를 처리한다. 합작 투자 형태로 현지 투자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 동업자와의 이해관계, 수익 배분 문제 등 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라도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대표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인력 채용, 세금 납부 등의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을 세우는 것이 좋다. 나아가, 현지법인 책임자를 한국 모회사의 파견직원으로 할지 아니면 현지인을 책임자 로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 현지인을 책임자로 선정할 경우, 추후 발생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은행 인출 금액의 상한선을 마련해 두거나 대금인출이나 결제 시 한국인 대표자의 결재와 같 은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불가리아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있으며, 해당 직원 들과 행정업무 처리시 통역원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편이다. 또한, EU 가입 이후 전문 인력들의 서유럽 국가 유출이 심화되며 숙련고급 노동자에 대한 구인난이 존재한다. 나아가 불가리아 내 거주 교민의 수가 많지 않아(2021년 기준 256명/2021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영업활동에 충분한 불가 리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국인 직원을 수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다만, 소피아대학 등 일 부 대학 내 한국어 전공학과 학생들이 있어,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다. 아래는 KOTRA 소피아 무역관으로 그간 접수된 불가리아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사항들로 투자 진출 검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법률, 회계, 노동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됨 ○ 전자정부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준이 열악함(신청서 양식 등을 매번 수기로 작성) ○ 외국법인 파견시 본인 및 동반가족 거주비자 발급 처리기간 지연(한국에 다시 귀국하여 현지 거주비자 발급을 대기 후,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신용거래, 현지 자금 조달이 어려움(높은 금리 수준) ○ 비교적 길고 다양한 유급 휴가 제도 ○ EU 가입 이후 강화된 환경 및 품질 기준 ○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불투명한 사업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3) 분쟁해결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외국에 등록된 법인, 개인 또는 시민단체)이 불가리아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자국민 대우)고 명기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는 경제부 산하 불가리아 투자청 (https://www.investbg.government.bg/en)을 설치/운영하며 세금/노무/법률 관련 투자 진출 지원을 통 해 투자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치는 최소 BGN1 이상이다.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돼야 한다. 출자자는 1인 이상의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최소 자본금은 5만 레바(약 26,000유로) 이상이다.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행

의 경우 1,000만 레바, 생명보험 200만 레바, 재산보험 300만 레바, 재보험 400만 레바, 투자회사 50만 레바, 민간의료보험 200만 레바, 민간 연금 300만 레바 등이다.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익년 3월 말까지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회사자본 출자자는 1인 이상이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자 지분에 한한다. 출자자는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하다. 최소 납입 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며 이사회 구성이 의무사항이며 회의는 연 1회 개최되어야 한다. 주주가 1명인 경우 회사의 명칭은 EOOD를 사용하며, 2인 이상의 경우 OOD를 사용한다. 차년도 3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K&K Accounting Bulgaria

전화번호	+359 887593065
주소	1 Business Park Sofia Str., building 4, groundfloor, Mladost 4, Sofia 1766
홈페이지	http://www.kik-bg.com
이메일	office@kik-b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BRAIN STORM CONSULT

전화번호	+359 280 99740
주소	Sofia, 9 Lyuba Velichkova Str., 6th floor
홈페이지	https://brainstorm.bg/
이메일	office@brainstorm.bg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INTRA PARTNERS

전화번호	+359 24432519
주소	17A Tvardishki prohod str, Strelbishte
홈페이지	http://www.intrapartners.net
이메일	info@intrapartners.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 Active Consult

전화번호	+359 895101818
주소	1 Business Park Sofia Str., building 4, groundfloor, Mladost 4, Sofia 1766
홈페이지	https://activeconsult.net/?lang=en
이메일	office@activeconsul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기업의 불가리아 법인 설립 지원 경험 보유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외환관리: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해 2000년 1월 1일부터 국제환 거래를 자유화했으며, 동법에 의해 내외국인의 외환 반·출입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정히 납부한 후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수익, △ 국가적 필요에 의해 수용된 투자의 보상금, △ 투자 종료에 따른 청산금, △ 투자물 판매 대금, △ 행정 소송의 결과로 수령한 금액

◦ 2002년부터 고정환율제 시행에 따라 1유로(=1.95583BGN)로 고정되어 있다. 자체적인 통화정책 능력 부족으로 유로화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 중이며, 불가리아의 불안정한 정치적 성향이나 금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고정 환율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 자회사 등은 환율 리스크가 적다.

- 2020년 7월 10일, 불가리아가 유럽 환율조정제도(Exchange Rate Mechanism II, ERM II) 가입했다. 불가리아는 2009년부터 유로존 가입의 전 단계인 ERM II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금융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지연되었다. 유럽 집행위는 2018년에 불가리아가 ERM II 가입을 준비를 승인하였고 당초 2019년 6월 ERM II에 가입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중앙은행의 현지 은행 대상 건전성 심사에서 일부 은행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이 무산됐다. 불가리아는 해당 현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ERM II 가입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7월 10일 ERM II에 가입 완료, 빠르면 2023년 유로존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 유로존(Eurozone):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

** 환율조정제도(ERM II):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조절 장치. 자국 통화와 유로화의 변동 폭을 $\pm 15\%$ 로 제한함.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 이후 최소 2년 이상 현지화 레바(Lev)와 유로화 간 적절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유로존 가입이 가능함.

◦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은 불가리아의 통화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어 외국인의 현지투자, 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낮춰 향후 불가리아의 무역,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가리아가 ERM II에 성공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S&P 등 신용등급 평가기관이 불가리아의 신용등급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됐으나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화로 현행 BBB등급을 유지했으며,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규제

외화 송금(대외송금): 불가리아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한은 없다. 그러나 EU 역내 거래일 경우에는 5만 유로 이상의 경우, 불가리아 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1 = BGN 1.76 (중앙은행 22년 1분기)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9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6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2.5
비고	○ 대졸-사무직 초임: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2018년 기준)의 학사 졸업자(Higher - professional bachelor's degree) 연봉(BGN 13,031)을 12개월로 나눈 수치에 18~21년 기간 물가상승률 (19년 3.8%, 20년 0.1%, 21년 7.8%)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임 ○ 고졸-생산직 초임: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2018년 기준)의 고교 졸업자(Upper Secondary) 연봉(BGN 10,569)을 12개월로 나눈 수치에 18~21년 기간 물가상승률 (19년 3.8%, 20년 0.1%, 21년 7.8%)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임 * 학력별 연봉 조사는 매4년마다 발표되며 조사기준일(2022년 4월) 2018년이 가장 최신자료임 ○ 불가리아 학력별 연봉 통계 조회: https://infostat.nsi.bg/infostat/pages/reports/query.jsf?x_2=1789 ○ 최저임금: 710BGN/월 (2022년 4월 1일부) - 불가리아는 한국과 달리 월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산출 - 1일 8시간 근무,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4.43 BGN 임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불가리아에서 고용계약은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최대 6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습기간 이내에는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가능하며, 수습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식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고용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1주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고용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1,000레바에서 1,500레바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월 임금 지불 이후에는 익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기 계약직 채용 방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현지법상 단기 계약직 채용 계약은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며, 계약의 갱신은 1회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 단기 계약 직원의 계약이 3년 이상 또는 계약 갱신이 1회 초과될 경우, 고용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 안전성을 위해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채용해야 된다.

근로시간

대부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공장의 경우 7~15시 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3월부터 10월까지 서머타임 실시 기간에는 사업체에 따라 8:30 출근 5:30 퇴근과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휴가

고용계약 후 8개월 근무 이후 최소 20일의 유급연차 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 여성의 경우 135일간 사회보장 당국으로부터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가, 국가시험 휴가, 학생의 경우 시험 휴가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현지법에 따르면 직원 잔여 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 최대 10일까지 차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이월된 휴가는 무기한 연기되지 않으며 차년도 상반기에 모두 소진해야한다.

해고

고용계약 해지 시 30일에서 3개월까지 사전 통지 대상이다. 보통 관행상 30일 사전 통지가 시행되고 있다. 근무 태만, 사내 규정을 위반한 사례, 회사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경고 이외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시,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

불가리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퇴사의 경우 퇴직급여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지 관례상 1개월 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특히, 퇴직일 기준 3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등 퇴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 등을 통한 퇴직 비용 재확인이 필요하다.

단,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6개월 치의 급여를,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2개월 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불가리아에서는 아직 노사협의회 구성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며, 임금인상과 같은 쟁점 현안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지도 않는다. 아직 불가리아에서는 노조 활동이나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 건강보험(Medical Insurance) 부담률: 8%
 - 고용주(Employer) 4.80% + 피고용자(Employee) 3.20%

고용보험

- 고용보험(Social Insurance) 부담률: 19.3%
 - 고용주(Employer) 10.92% + 피고용자(Employee) 8.38%

산재보험

- 산재보험(Safety Insurance) 부담률: 0.4%
 - 고용주(Employer) 0.4% + 피고용자(Employee) 0%

국민연금

- 국민연금(Pension) 부담률: 5.0%
 - 고용주(Employer) 2.8% + 피고용자(Employee) 2.2%

기타 설명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연금 등을 포함한다. 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보장세 담당 기관(불가리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불가리아 내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에 가입해야 하며 이 사회보장세는 모든 위험을 커버한다. 사회보장세는 2004년까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75:25의 비율로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 부담률이 약 60:40으로 변경 및 조정됐고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의료보험(보험료 8%)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세율은 피고용자 총 급여의 약 15% 내외이다.

불가리아에서 노무관리와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오랜 터키 및 공산주의 지배 체제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태도가 매우 수동적이며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상급자에 대한 수시 보고 역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다. 또한, 주어진 업무 이외에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신속한 업무처리, 보고 체계를 중시하는 한국 기업 문화의 시각으로 현지 근로자들을 바라볼 때,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별 기한을 지정하고 수시로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에 의해 모든 회사 및 조합은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이다. 법인소득세율은 2007년 1월 1일부로 종전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이는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비법인의 경우는 종전의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특별 법인소득세 : 보험 및 재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7%이며 생명 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2%이다. 게임, 복권 등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배팅 수익금에 대한 세율은 8%이며 티켓 판매에 대한 세율은 12%이다. 선물 구입, 오락, 후원 등에 대한 비용 처리와 관련 적용 세율은 25%이다.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리, 관리 비용 등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 세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0.15%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지사의 소득: 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의무가 있다.
- 자본 소득: 자본 소득은 법인 소득에 포함돼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배당 소득: 타 내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지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리아 업체가 납부해야 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불가리아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Act)에 의해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불가리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득액에 관계없이 10%의 정률 소득세(flat tax rate)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자는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지가 있거나 1년 365일 중 183일 이상을 불가리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불가리아에서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불가리아 내에서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개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의 사업 활동이라 함은 불가리아 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활동 근거가 있고 불가리아 내에서 소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 부동산의 교환 또는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 법정 연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 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 △ 은행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법정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액, △ 사회 금융 지원금 및 실업 수당 등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소득, △ 정부의 아동 양육비,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소득, △ 농지 임대료
- 원천징수: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해 납부한다.
- 자본 이득: 자본 취득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산출
- 자유직업 소득: 소득 발생 시 15%를 징수하되 법정 사회보장세 등 납부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 경영진 소득: 민간 계약에 의해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취득한 소득은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 대상이다. 소득 발생 시 15%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경영진이 연간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세 납부 기준에 의거 징수하며 사회보장세도 원천 징수 납부해야

하고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제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인 사업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에 의해 과세
- 임대 소득: 연간 종합 소득세 정산 대상이며 소득의 15%는 과표에서 공제 허용된다. 임대 소득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5%의 지주세 징수한다.
- 로열티 및 기술료: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5%의 지주세를 원천 징수. 경영 서비스 수수료는 기술료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지주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배당 소득: 소득의 15%를 확정적으로 원천징수한다.
-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계약 소득: 연간 정산 대상 소득이다.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15% 확정 과세 대상이다.
- 기타 소득: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50%를 확정 과세 원천징수한다.
- 기타 : 배우자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 간 소득의 합산 및 분배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인 연간 소득 종합신고 기한은 익년 4월 15일이며,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 소득세법(Private Income tax Act; <https://www.minfin.bg/en/827>)을 참조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19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법과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다. 과거 12개월간 과세 매출 BGN 75,00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매출액이 BGN 50,000에서 BGN 75,000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 달 14일 이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다만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8%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품목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관광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일원화라는 EU의 권고에 따라 2011년 1월 1일자로 9%의 통일된 관광서비스 부가세를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모든 호텔은 투숙객들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부가세 9%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호텔 룸 이외의 상담장이나 시설물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20%가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 물품세(Excise Duties): 특정 물품의 반입 시에는 물품세를 납부해야 한다.
- 과세 품목: 주류(맥주 및 포도주 포함), 담배 제품, 연료,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카지노 설비 및 게임 용품, 커피 및 차

기타

- 지주세 (Withholding Taxes):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특정 형태의 소득 중 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된다. 지주세 부과 대상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법에 명시돼 있다. 지주세 납부 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이다
- 지방세 및 수수료(Local Taxes & Fees):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현재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쓰레기세 (Garbage Charge), 자동차세(Vehicle Tax & Road Charge)

-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는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외국 기업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0%(정부 및 국가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면제), 로열티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VAT) 한시적인 인하 연장 논의

-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불가리아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도서, 아기 위생 용품(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기존 부가세 인하 조치는 2021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불가리아 내 코로나 장기화 추세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불가리아는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물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불가리아 법에 따라 'BPO'라 약칭하는 불가리아 특허청(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이하 'BPO'라 함)에 지식재산권을 개별 출원하거나 등록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특허권) 신규성이 있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활용가능성이 높고,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출원일로부터 4년간 보호되고, 각 3년씩 2회 갱신할 수 있다.
- (디자인권)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제품이나 제품 일부가 보이는 모양, 선, 그림 장식, 색상 조합 또는 이들 조합에 대해 인정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불가리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 (상표권) 식별력이 인정되고 절대적,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10년씩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소송 요건을 갖춘) 독점실시권자는 소피아시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BPO에 등록 지식재산권의 등록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불가리아 특허청장은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 실용신안법 및 산업 디자인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자에게 벌금 또는 금전적 제재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며,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개별국 등록 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등록 출원을 통해서도, 불가리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개별국 출원보다는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불가리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도 하지만, 모기업의 재정 악화나 현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을 철수 및 청산할 때는 불가리아 상법에 근거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납부가 충실히 이행되고, 체납 세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규정상으로는 6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철수 및 청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현지 세무 당국 및 유관기관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실제로 청산에 걸리는 시간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회사의 청산은 해산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료시킨다. 청산은 해산 후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정리 및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신청해 회사 법인 자격이 완전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한편, 기업의 ‘청산’과 ‘파산’은 엄연하게 다른 의미이다. 청산은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반면, 파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 불가리아에서 법인 철수를 위한 청산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청산자는 관할 세무서(National Revenue Agency)에 청산 시작을 알리는 청산 요구 신청서를 제출

(세무서로부터 청산증명서 발급까지는 보통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청산자는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와 청산 결정서, 청산 방법 관련 보고서를 등기청(Registry Agency)에 보고

- 법무부 산하 불가리아 사업자 등록사이트(Trade Register)에서 청산 관련 보고서를 공시

- 관할 세무서(National Revenue Agency)는 사회 및 건강보험 포함한 모든 세금 내역을 조사후, 체납 세금 여부 확인

- 청산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 청산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관할 세무서는 청산사실을 공시, 청산자는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청산 사실 통보
- 채권자 중에서 클레임을 원하는 경우, 청산 사실 공시 이후 6개월 이내 클레임 제기 가능
- 6개월 기한 내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청산 기업명을 삭제 조치

(단, 이때 청산자는 사회보험국(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으로부터 두 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2개의 서류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회계서류가 제출됐다는 증명서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회·건강보험 미이행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임)

- 등기청은 모든 서류와 증명서가 구비되면, 청산 기업명을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사이트에서도 삭제 조치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1) 소비 인구 개요

불가리아의 인구는 683만 명(2021년 기준)으로 루마니아, 그리스 등 인근국 대비 소비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다. 제조업 등 2차 산업 발달이 미약하여 공산품 대부분을 독일 등 서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 평균 물가 수준 대비 공산품 가격이 비싼 것이 특징이다. 1인당 GDP는 11,683달러로(2021년 IMF 기준), 불가리아 소비인구는 EU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역내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고임금 직장을 얻기 위한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이 많은 편으로, 그 결과, 불가리아 소비 시장 내 핵심 소비층(경제활동이 활발한 20~64세)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연령별 소비인구 분포

2020년 기준 주력 소비층인 20~64세 소비인구는 총 4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 수준이다. 미성년 인구(19세 이하)가 131만 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하며, 노년 인구(64세 이상)가 150만 명으로 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역시 다른 유럽국가와 유사하게 연평균 2%의 성장률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년 소비층의 비율이 지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노년 인구의 비중 21%로 높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다.

3) 지역별 소비인구 분포

불가리아의 도시화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는 500만 명, 농촌 거주 인구는 183만 명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도시 거주 인구가 총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불가리아 내 주요 도시로는 2021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소피아(124만), 플로브디프(34만), 바르나(33만), 부르가스(20만) 등이 있으며, 해당 5대 도시에 인구의 30%가량이 집중되어 있다.

4) 소득별 소비인구 분포

불가리아 소비인구는 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간 소득층이 적어 시장이 저가품과 고가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불가리아 고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독일, 영국 등 서유럽에서 사업이나 학업 목적의 체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서유럽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고로, 불가리아의 경우 IT 분야 종사자의 임금이 전체 평균 대비 24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반면, 식당/숙박 등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전체 평균 대비 67%로 가장 낮은 편이다.

* 2021년 불가리아 월 평균 임금: BGN 1,503 / IT분야 평균 임금: BGN 3,670 / 식당 등 단순 서비스업 평균 임금: BGN 863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IMF>

소비 성향

1) 가격

1인당 GDP는 11,683달러로(2021년 IMF 기준) EU회원국 중 낮아 일반적인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한 편이다. 저소득 소비자의 경우 가격 요인이 제품 구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중국이나 터키에서 수입된 저가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편이다. 반면, 불가리아 특유의 과시 문화로 인해 고소득 소비자는 오히려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하여 Fantastico, Metro 등에는 고소득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식품 코너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2) 제품

2007년 EU 가입 이후 서유럽권 국가와의 인적교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서유럽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다. 또한, 바이어

들이 독일, 이탈리아 등 인근국에서 소량 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하여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독일 등의 서유럽 제품이 비교 기준이 되는 편이다. 한편, 저가 공산품의 경우 인근국인 터키나 중국 등에서 다수 수입되고 있다.

3) 유통 구조

과거 시장이나 소형 잡화점이 주요 유통망이었으나 도시화 가속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 및 제품별 전문 매장의 유통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식료품 등의 경우 현대적인 슈퍼마켓 체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60%, 소형 잡화점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이 40%이다. 주요 유통망으로는 Kaufland, Lidl, Billa 등 서유럽 유통체인 및 불가리아 자체 유통망인 Fantastico 등 이 있다.

또한, 의류/신발, 전자 제품, 미용, 홈/가든, 레저/스포츠 등의 제품 별 전문 매장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현지 운영 중인 전문 유통망으로는 Decathlon(스포츠/레저), Technopolis(전자제품), IKEA(홈/가든), Jumbo(장난감) 등이 있으며, 저가 중국 수입품만을 취급하는 China City(생필품)도 있다.

뷰티의 경우 오프라인 주요 유통망은 DM, Lilly 등이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이며 저렴한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불가리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이며 전자제품 전문 매장에서 삼성, LG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주요 가전제품인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에 있어서도 삼성, LG 브랜드가 강세를 보인다. 최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자제품 매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관공서, 호텔에도 대부분 삼성, LG TV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 차량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 현지 택시 회사 중 일부는 'KIA Ceed' 모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찰의 순찰 차량에도 동일한 모델을 운용하고 있어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또한, 영국 등 서유럽에서 발생한 한류가 불가리아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며 불가리아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산 생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 한국의 방역 사례가 불가리아 현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며 마스크 등 한국산 의료 용품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 콘텐츠가 불가리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데, OTT서비스인 '넷플릭스' 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의 경우 16주 이상 'TOP10 콘텐츠' 에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매장에서 K-POP이 흘러나오는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크게 늘어나며 Sephora 등 현지 주요 화장품 유통망 내 한국 화장품 섹션이 생겼으며, 불가리아 화장품 오프라인 대형매장인 'DM, Lilly' 등에도 한국산 화장품이 입점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현지 주요 쇼핑몰 중 하나인 'Seridika Center Mal' 내에 불가리아 최초로 한국 화장품 전용 숍이 개업했다. 그 이후 'Ring Mall, Paradise Mall' 뿐 아니라 현지 시중심가의 전문샵까지, 2022년 9월 기준 소피아 시내에 한국화장품 전문매장 4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으로 BTV, BNT 등 불가리아 주요TV방송에서는 한식 소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식당의 개업 역시 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소피아시 도심 내 대형 한국 식품 매장도 개업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의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상품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소 용이해졌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금융 부문의 취약성 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파악이 필요하다. Unicredit Bulbank, Raiffeisen bank, First Investment Bank, Post bank, UBB 등 비교적 건실한 은행과의 거래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원자재 수출 또는 대형 설비 수출의 경우 바이어에 대한 사전 신용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른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보험 상품 가입 시 혹시 모를 바이어의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된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 인증(규격 인증 포함), 즉 CE 마크 획득이 필수이다. 불가리아 수입업체들은 소량 수입·판매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업체가 요구하는 최소주문량(MOQ)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규모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식 오더 이전에 샘플 공급 및 판매를 통해 바이어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전 시장조사를 진행한 다음,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오더 물량의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4) 결제조건 제시

우리나라 업체는 대부분 T/T in advance 조건이나 L/C(신용장) at sight(일람불)를 요구하고 있으나, L/C 개설에 따른 서류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설에 따른 은행 수수료가 발생해 현지 업체들이 신용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T/T 결제를 선호하며, 현지 관행상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70%를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에 따라 50% 대 50% 또는 30% 대 60% 그리고 나머지 잔금 10%를 물건 검수 확인 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전 송금 및 잔액 도착 시 지불 등 결제조건에 대해 보다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가장 보편적인 복장은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다소 대범한 복장도 용인되는 편이지만 첫 만남인 경우에는 격식을 차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리아 직장인들은 청바지, 면바지에 셔츠를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고, 공식 행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정장을 착용한다. 면식이 있는 바이어나 상대방의 경우에는 평상복도 용인되는 편이므로 복장에 크게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2) 인사

불가리아에서의 인사는 남녀의 구별없이 가볍게 악수하는 것이 무난한 인사법이다. 상대방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어색하므로,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고 가볍게 악수를 나누면 된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이며 명함이 없거나 소진됐을 경우, 타인의 명함 위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된다.

호칭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보다 직함을 불러주는 것을 더 선호하며 남자의 경우는 Mr, 여자의 경우는 Miss,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는 Dr.라는 명칭과 성을 결합해 부르는 것이 관행이다. 예를 들어, 게오르기 디미트로브(Georgi Dimitrov)라는 회사 사장을 호칭할 경우에는 미스터 디미트로브(Mr. Dimitrov)라고 불러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프레지던트 디미트로브(President Dimitrov)라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단순히 게오르기(Georgi)라고 하거나 미스터 게오르기(Mr Georgi)라고 하는 것은 실례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는 서로의 존경과 친근함을 표하는 인사법으로 자기 뺨을 상대방의 뺨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다시 왼쪽으로 한 번 가볍게 대는 인사를 한다. 이 인사법은 친한 동료나 오랫동안 못 본 친구에게 하는 인사법이므로 처음 본 사람에게서는 하지 않는다.

3) 선물

불가리아인에게 선물을 할 일이 있다면 보통 꽃(장미), 책 등이 무난하다. 결혼식 때는 관습적으로 '칼리야'라는 꽃을 선물해 왔으나, 요즘에는 연분홍색 장미꽃도 많이 선물하곤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친구에게 시계를 선물할 경우 시계가 우정 지속기간을 켜고 여지며,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선물로 프라이팬을 주는 것은 아내를 단지 'housewife(전업주부)'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여겨 선호하지 않고, 간단한 쿠키를 선물하는 것도 '쿠키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선물로서는 부적절하다.

그 외에 보편적으로 적합한 선물로는 와인이 있다. 불가리아는 포도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와인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므로 와인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다만, 50달러가 넘는 고급와인이나 양주 등은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따라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한다. 실제로 생일이나 네임 데이(name day)를 맞은 사람이 당일날 주변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관습이 있다. 불가리아에는 생일 이외에도 네임 데이를 축하하는 관습이 있으며, 보통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 성인의 날이 자신의 네임 데이가 된다. 관공서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때는 대중적인 초콜릿이나 10달러 이하의 와인이 적당하다. 처음 만나는 바이어에게는 한국의 특성이 담긴 인삼차나 홍삼절편, 볼펜 등이 무난하고 생일선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한국 인형이나 자개를 박은 보석함, 명함첩, 부채 등도 증정하기에 적합한 선물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러하듯, 불가리아인들도 각 나라 전통문양이 새겨진 거울, 컵받침 등 전통이 녹아있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매우 좋아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방역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나 중국산 마스크 등 질 낮은 제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어 한국산 KF 마스크, 손세정제와 같은 품질 좋은 방역제품도 선물로 인기가 있는 편이다. 또한 한국뷰티 제품 수출이 늘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화장품은 우수한 성분의 질 좋은 화장품으로 인지가 되고 있어, 선물로도 선호도가 높다.

4) 약속

불가리아인은 시간 개념이 명확한 편으로 비즈니스 미팅 등의 공식 만남의 경우 늦지 않고 약속 시간을 준수한다. 현지 기업이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 최소 2주 전에 서면으로 방문 신청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리아 관공서의 경우 회신이 더딘 편으로, 서면 신청 후 전화로 면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면담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원하는 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5) 식사

유럽의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의 요리는 한국인의 취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선 불가리아인은 마늘과 고추를 양념으로 사용하며 파와 양파도 비중 있게 즐긴다. 불가리아인은 식전주로 라키야라고 불리우는 40도짜리 과일주를 마시며 전식으로 샐러드와 스프, 다음으로 메인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높은 케익이나 티라미슈 등을 디저트로 먹는다. 식사를 할 때 아이란이라는 요구르트 음료를 즐겨 마시는 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을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저녁은 든든하게 먹는 편이다. 다만, 저녁시간이 오후 8~10시 사이로 늦게 음식을 먹는 편이며, 특별한 파티의 경우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배를 할 때는 잔을 보지 않고 상대방 눈을 보며 가볍게 잔을 부딪치며 "나즈드라베('당신의 건강을 위해'라는 의미)"라고 외치면 된다. 음식의 재료는 대부분이 돼지와 닭고기이며, 쇠고기는 드물고, 양고기는 고급 요리로 평가된다. 중고급식당에는 생선요리도 있다. 최근 들어 스시 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스시와 일반 음식을 결합한 퓨전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현지에서 가장 잘 알려진 퓨전 식당은 happy(www.happy.bg)이다. 불가리아에서 가장 성공한 퓨전식당으로, 각종 고기류의 일반 음식을 비롯해 해물, 스시, 스타게피, 피자 등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당 중에 하나이다. 스시가 불가리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건강을 생각한 웰빙 음식이자 고급음식이라는 이미지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스시와 같은 음식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선호하고 있다. 다만, 불가리아 사람들이 흔히 먹는 스시는 일반 한국, 일본에서 먹는 스시 종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롤과 같은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소피아시에는 한국식당들도 있으며, 현지인들 간혹 매운 것을 전혀 못먹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메뉴주문시 유의해야 한다.

6) 문화적 금기사항

불가리아인들은 장례식 참석 시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지 않고 오직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며, 조화 준비 시 반드시 2, 4, 6과 같은 짝수로 준비해야 한다. 평상시에 선물용으로 꽃을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되며 짝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 가입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과거 공산주의 정권 영향으로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정치인, 기업인, 일반인 등이 다수 있는 바, 전쟁 등 국제정세를 언급할때 이를 유의하여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태도

불가리아와 비즈니스를 할 시에는 한국식의 '빨리 빨리' 태도보다는 여유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비즈니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거래 시 수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다소 업무 진행이 더딘 편이다. 또한, 불가리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업무 교신 시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유선 접촉 또는 KOTRA 소피아 무역관을 통해 접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Technopolis (온/오프라인 매장 동시 운영) - 주소: https://www.technopolis.bg - 매출 규모: 313.6 백만 유로(2020년) - 주요 품목: 생활가전, 전자기기, IT 2) Technomarket (온/오프라인 매장 동시 운영) - 주소: https://www.technomarket.bg - 매출 규모: 147.8 백만 유로(2020년) - 주요 품목: 생활가전, 전자기기, IT 3) Zora (온/오프라인 매장 동시 운영) - 주소: https://zora.bg/ - 매출 규모: 123.5 백만 유로(2020년) - 주요 품목: 생활가전, 전자기기, IT 4) E-MAG - 주소: https://www.emag.bg/ - 매출 규모: 94.1백만 유로(2020년) - 주요 품목: 가전, 의류, 화장품, 기타잡화 5) Remix - 주소: https://remixshop.com - 매출 규모: 30.98 백만 유로(2020년) - 주요 품목: 중고제품, 의류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한국남동발전과 태양광 전문기업 SDN은 산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 공동투자로 2011~2012년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불가리아에 건립했다.(총 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치한 불가리아 정부는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책에 따른 재정난으로 Grid Access Fee(2012년), Solar Fee(2014년) 등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고, 이로 인해 양 기업은 금융상환 위기를 겪게 된다.

하지만, 2013년 불가리아 대법원이 불합리한 Grid Access Fee를 폐지하고, 2014년 Solar Fee 역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현지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위기는 곧 해소됐다.

불가리아 내 시장주도형 전력 시장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남동발전과 SDN은 현지 글로벌 은행들과 리파이낸싱을 성사시켰으며(2017년), 2020년 1월에는 해당 은행들과 파이낸싱 조건 개선 계약(이자율 0.5%p 인하)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며 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금 조기 회수가 전망되고 있다.

동 사례는 우리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유럽 신재생 에너지 불모지인 불가리아에 동반 진출해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사업 운영으로 현지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극복하고, 해외 투자에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무비자 입국(관광비자)

1994년 8월 우리나라가 불가리아와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된다. 따라서 무역사절단, 비즈니스 출장 등 불가리아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 체류비자 입국

불가리아 장기 체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비자신청서, 여권사진 2매(1년 이내의 사진)
-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
- 현지 거주지 계약서
- 비자 신청 목적이 명시된 증빙서
- 체류기간 보험 가입 증빙 서류
- 범죄기록 증명서
- 장기비자 신청 수수료

○ 비자 신청 서류 준비 과정

- 비자 신청서 문의: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영사과에 이메일로 문의해 비자 신청서 서식을 받는다.

○ 비자 신청 관련 서류 준비

-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 상기 비자 신청서 서식과 만료기한이 충분히 남은 여권(최소 6개월), 1년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 현지에서의 재정수단 증빙 서류
- 본인 명의로 된 은행 영문 잔고 증명서(한 달 기준 180유로 / 예: 6개월 비자 신청 시, 1,080유로 이상의 잔고 필수)
- 비자 신청 목적을 명시하는 서류
- 학교 입학원서, KOTRA 인턴 채용 증명서 등 불가리아 장기 거주 목적이 명시된 서류
- 현지 거주지 증명 서류
- 거주지 계약서 원본, 영문 공증본 서류
- 영문 보험증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증권
 - 체류기간 보장, 최대 보상금액 30,000유로 이상, 영문 증권 원본
- 범죄기록 증명
 - 경찰서 민원센터에서 영문 범죄기록 증명서 발급 후, 외교통상부 여권과로 찾아가 증명서에 아포스티유(Apostile)를 받는다. 그 이후 해당 문서를 대사관 번역사에게 보내 불가리아어 번역을 받고
 - 완성된 문서 원본을 제출한다(불가리아어 공증은 주한 불가리아대사관에서 진행).

○ 비용

- 비자 신청 수수료: 6개월 150,000원 내외 / 1년 300,000원 내외
- 보험 가입: 약 500,000원
- 영문 범죄사실 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불가리아어 번역 및 비용은 번역사에게 문의 필요
- 범죄사실 증명서 영문 공증: 50,000원 내외

3) 비자 신청 서류 접수

- 이메일, 유선으로 서류 접수 및 영사 미팅 신청
- 이메일 접수 시, 신청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영사 미팅 날짜 확정 후 신청 서류, 수수료 및 여권 등을 준비해 대사관 방문
- 비자 발급 기간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약 30일 소요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름)
-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됨.
- 해당 날짜에 대사관 방문, 비자 수령 완료

4)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2-8
- 홈페이지 : <https://www.mfa.bg/en/embassies/korea>
- 연락처
 - 전화: (02)794-8625, 26
 - 팩스: (02)794-8627
 - 이메일: Embassy.seoul@mfa.bg
 - 긴급전화(업무시간 이후) : 010-3549-8625
-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5:30

5) 코로나 관련 사항

- 입국 시 코로나 관련 필요 서류, 검역 절차 등은 없음. 다만, 7월부터 불가리아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바, 전철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담배류

- (Cigarettes) 항공 입국 시 20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40개비
- (Cigars) 항공 입국 시 5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10개비
- (Cigarillos) 항공 입국 시 100개비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20개비
- (Tobacco) 항공 입국 시 250그램 / 기타 교통편을 통한 입국 시 50그램

2) 주류

- 알코올 함량이 22% 이상 1리터
- 알코올 함량이 22% 미만 2리터
- 논 스파클링 와인(Non-Sparkling wine) 4리터
- 맥주 16리터

3) 기타 제품 (커피, 차류, 향수, 완구류, 전자기기 등)

- 항공/선박 입국 시 EUR 430 이하의 제품
- 육로/강 입국 시 EUR 300 이하의 제품

4)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현금/기타 귀금속류 등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

- EUR 10,000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통화, 수표, 여행자 수표, 금 제품
- 37그램 이상의 금 또는 백금
- 금 또는 백금을 포함하는 60그램 이상의 장신구
- 300그램 이상의 은, 또는 은이 함유된 장신구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359-2-971-2181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Srebarna Street 2V, Mobi Art Building, Floor 4,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bg-ko/index.do
비고	긴급 사건사고 연락처: +359-887-503-270(휴대전화)

◦ 불가리아 한인회

전화번호	+359-886-631-205 (한인회 회장 : 강환정)
주소	-
홈페이지	http://bulgaria.korean.net
비고	이메일 : koreans.bulgaria@gmail.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경제부

전화번호	+359-2-940-7322
주소	8, Slavyanska Str., Sofia 1052,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mi.government.bg
비고	이메일: e-docs@mi.government.bg

◦ 재무부

전화번호	+359-2-985-91
주소	102, G. S. Rakovski str. sofia, 1040
홈페이지	http://www.minfin.bg
비고	이메일: feedback@minfin.bg

◦ 불가리아 의회

전화번호	+359-2-939-39
주소	Sofia 1169 2 Narodno Sabranie Sq.
홈페이지	http://www.parliament.bg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전화번호	+359-2-8117-400
주소	Sofia 1058, 9 Iskar Str
홈페이지	https://www.bcci.bg/
비고	이메일: bcci@bcci.bg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전화번호	+359-2-914-59
주소	1, Knyaz Alexander Sq., 1000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bnb.bg
비고	이메일 : BNB-Delovodstvo@bnbank.org

◦ 불가리아 중소기업진흥청(BSMEPA)

전화번호	+359-2-940-7940
주소	SOFIA 1000, 2-4, Lege Street
홈페이지	https://www.sme.government.bg/en/
비고	이메일: office@sme.government.bg

◦ 불가리아 산업협회(BIA)

전화번호	+359-2-932-0911
주소	1527 Sofia, 76 Chataldzha Str
홈페이지	http://www.bia-bg.com/info/biamembers_en.html
비고	이메일: office@big-bg.com

◦ 불가리아 등기청(Registry Agency)

전화번호	+359-2-948-6194
주소	Sofia 1111, 20 Elisaveta Bagryan Str
홈페이지	http://www.registryagency.bg/en/
비고	이메일: office@registryagency.bg

◦ 불가리아 관세청(Customs Agency)

전화번호	+359-2-9859-4210
주소	G.S.Rakovski 47 Str. Sofia 1202 Bulgaria
홈페이지	https://customs.bg/wps/portal/agency-en/home
비고	이메일: delovodstvo@customs.bg

◦ 불가리아 통계청(NSI)

전화번호	+359-2-985-7111
주소	2, P. Volov Str. 1038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nsi.bg/en
비고	이메일: Info@nsi.bg

◦ 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NCIZ)

전화번호	+359-2-890-2902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홈페이지	http://nciz.bg/en/
비고	이메일: office@nciz.bg

◦ 불가리아 국영 TV(BNT)

전화번호	+359-2-944-4999
주소	Sofia 1000, 29 San Stefano Str
홈페이지	http://www.bnt.bg/
비고	이메일: gledam@bnt.bg

◦ 불가리아 뉴스에이전시(BTA)

전화번호	+359-2-926-242
주소	49 "Tsarigradsko shose" blvd, 1124 Sofia, Bulgaria
홈페이지	http://www.bta.bg
비고	이메일: bta@bta.bg

◦ 불가리아 주요 경제일간지(Capital)

전화번호	+359-2-4615-122
주소	20 Ivan Vazov Str, Sofia 1000
홈페이지	http://www.capital.bg/
비고	이메일: info@capital.bg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9 BGN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5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1.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15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6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2L	1.400
8	의료	항생제	12정	6.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00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1.000
11	교통	택시요금	시내-공항 기준	7.5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5.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500
14	서비스	인터넷 월 사용료(30Mbps 기준)	1개월	8.500
15	서비스	휴대전화요금(무제한요금제)	1개월	25.000
16	여가	담배 (말보로)	1갑	3.100
17	여가	소주 (한식당 내 판매최저가)	360ml	11.400
18	임금	최저임금(월급여)	법정최저	363.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G1~5기준) 수업료	연간	2306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000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중앙은행, KOTRA 소피아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불가리아의 화폐 단위는 레바(Leva)이며 지폐는 100, 50, 20, 10, 5레바 동전은 2레바, 1레바 및 50, 10, 2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다. 100 스토틴키는 1레프(단수는 '레프', 복수는 '레바')이며 공식환율표현은 BGN이다.

환전방법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우체국,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시내 환전소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 없이 환전할 수 있다.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 조각 등을 이용해 속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 환전소라 할지라도 환율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공항 환전소, 민간 환전소,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하며 민간 환전소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다.

환전 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 액수보다 적게 줄 수도 있으므로 환전하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전상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환율과 최종 금액을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서명해야 한다. 환전소 밖에 고시된 환율의 소수점 자리 수 및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전소는 대부분 휴일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으나 시내 일부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소액환전의 경우 별도 환전소보다 호텔 컨시어지에서 교환하는 게 편리할 수 있다.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 정보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www.bnb.bg) 또는 유니크레딧 불가리아(www.unicreditbulbank.b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수도인 소피아의 경우 노점,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다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아직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아 지방 소도시 출장 시에는 현금을 꼭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나. 교통

교통상황

불가리아 운전자들은 운전을 거칠게 하는 편이며, 불가리아는 EU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시내를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히며, 출퇴근 시간 외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고속도로가 불가리아 동부지역, 남부지역으로 잘 나있는 편이나 북부지역은 고속도로가 다소 낙후되어 있다.

버스

불가리아 내에서 운영 중인 버스는 전동버스와 일반 버스 2종류이며, 버스표는 거리의 신문·잡지 가판대 또는 버스 탑승 후 버스 기사에게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단, 버스에서 구입할 경우 버스 기사가 잔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버스 요금만큼의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버스 승차 후에는 차 안에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에 개찰해야 한다. 검표원이 불시 버스 내 승객의 개찰 여부를 검사(특히, 현지 버스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대상 검사가 많음)하며, 만약 개찰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요금은 1.60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경우 버스, 지하철, 트램을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Daily Ticket)을 구매할 수도 있다.

1일권의 가격은 4레바이며 버스표 가판대, 지하철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일권의 경우는 버스나 트램에서 개찰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매회마다 충전(무료)을 요청해야 한다.

택시

택시 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 시에는 유리창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기본 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된 금액이 km당 요금으로, 이 요금이 0.90레바(평상시 요금)나 1.05레바(야간 할증 요금) 내외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면 된다.

요금표는 보통 두 칸으로 구분돼 있는데, 왼쪽의 숫자는 낮 시간대 요금, 오른쪽의 숫자는 야간 할증 요금이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 외에 분당, 거리당 요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 요금이 1.05레바 이상 적혀있는 택시는 요금이 다소 높은 것이다. 야간 할증 요금 적용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콜택시의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불가리아 내에서 규모가 큰 OK택시, Yellow 택시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근처에서 OK택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이나 식당 등을 통해 OK택시나 Yellow 택시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불가리아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균 택시 요금 대비 과하게 높은 택시 요금을 부과하는 사설 택시(scam taxi)가 많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미리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 승차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불가리아에 처음 출장 올 경우 불가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콜택시 앱인 Taxi me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Taxi me의 경우 사전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거리에 따른 평균 예상 요금이 자동 계산되어 나오며, 앱을 통해 담당 택시기사에게 도착지가 안내되어 현지 택시요금 시세를 잘 모르는 거나 불가리아어 구사가 힘든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지하철

불가리아에는 수도인 소피아에만 4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이용 요금은 1.6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5:30부터 23:30까지이다.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해야 할 경우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트램을 모두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일권(Daily Ticket)을 구매할 수도 있다. 1일권의 가격은 4레바이며 지하철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매회마다 충전(무료)을 요청해야 하며, 버스나 트램의 경우는 개찰 없이 1회권을 버스 기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트램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며, 승차 전 정류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운전석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트램 승차 후에는 차 안에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에 개찰해야 하며, 검표원이 불시로 트램 내 승객의 개찰 여부를 검사(특히, 현지 대중교통 시스템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대상 검사가 많음)하며, 만약 개찰하지 않은 표를 가지고 트램을 이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요금은 1.6레바로 한화 약 1,100원이며, 운행시간은 5:30부터 23:00까지이다. 트램 내에서 소매치기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트램 이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다. 통신

핸드폰

불가리아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로컬 SIM 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대부분의 핸드폰에 맞는 유심칩을 제공하고 있다. 선불 요금제일 경우 불가리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후불 요금제일 경우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 시 자동 로밍이 된다. 선불 유심의 경우 선불 납부 이후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 수신은 1년까지 가능하다. 주요 통신사로 A1, Vivacom, Teleno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불가리아는 거리에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보통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o 벨리코 트르노보 차레베츠 성(Tsarevets)

도시명	벨리코 트르노보
주소	Tsar Asen Square, 5000 Veliko Tarnovo
운영시간	8:00~19:00
명소소개	벨리코 트르노보(11~14세기 불가리아의 수도)의 5,000년 역사의 일부분이다. 4,200BC,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됐다. 1985년, ‘Sound and Light’이라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성곽에 빛과 사운드 효과가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고	o 전화: +359 062 638 841 o 홈페이지: bulgariatravel.org

o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도시명	불가리아
주소	Rila Monastery
운영시간	월-금: 8:30~17:00
명소소개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세기에 최초 건축됐으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내 9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비고	o 전화: + 359 7054 2208 o 홈페이지: rilskimanastir.org

o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Aleksandar Nevski)

도시명	소피아
주소	pl. “Sveti Aleksandar Nevski”, 1000
운영시간	7:00~19:00
휴무일	-
명소소개	네오 비잔틴 양식의 발칸 반도 최대의 사원(사원 내부가 1,300평방미터로서 5,000명 집회 가능)이다.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와 싸운 러시아 병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882년 공사를 시작하여 1924년에 완성했다. 내부의 벽은 러시아, 불가리아 유명 화가들이 그린 성화로 가득하다. 지하실에는 고대와 중세 불가리아의 유물, 성화를 전시하고 있다.

비고	○ 전화: (+359 2) 987 56 11 ○ 홈페이지: http://www.bg-patriarshia.bg
----	---

○ 비토샤 산(Vitosha moutain)

도시명	소피아
주소	-
운영시간	-
휴무일	-
명소소개	소피아 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 2,290m의 산이다. 중턱의 코피토토 호텔(별 5개) 전망대에서는 소피아 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최고봉 체르니 브르흐 바로 아래의 알레코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 플로브디브 고대 원형 극장(Plovdiv)

도시명	플로브디브
주소	4 Tsar Ivaylo Str., 4000 Tsentar, Plovdiv
운영시간	9:00~18:00
명소소개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과 구도시(Old Town)가 보존돼 있다. 원형극장은 현재까지도 콘서트나 다른 행사시에 쓰이곤 하며, 5000~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비고	○ 전화: +359 032 621 040 ○ 홈페이지: visitplovdiv.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체베르메토(Chevermeto)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3-0308
주소	Sofia, Bulgaria Square 1, Ndk, Pronoto, bul. "Pencho Slaveykov", 1463 Sof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3: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20년 이상된 불가리아 전통 식당으로 저녁시간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전통 춤, 노래 등을 공연

비고	- 홈페이지 : https://chevermeto-bg.com/ - 이메일 : chevermetobg@gmail.com
----	--

◦ 보데니짜따(Vodenitza)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7-1058
주소	KV. DRAGALEVTSI, PARK VITOSHA, SOFIA, BULGAR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비토사 산에 위치한 불가리아 고급 전통식당으로, 이낙연 전 총리 등 국/내외 유명 인사가 방문
비고	- 홈페이지 : http://vodenitzata.com/en/ - 이메일 : info@vodenitzata.com

◦ 포들리삐떼(Pod lipite)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866-5053
주소	1, Elin Pelin Str., Sofia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50달러 수준
영업시간	12: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소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비고	홈페이지 : http://www.podlipitebg.com/en

◦ 해피(Happy)

도시명	전국 프랜차이즈
전화번호	+359-88-6000-700
가격	2인 식사 기준 약 60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없음
소개	불가리아의 가장 보편화된 현대식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비고	홈페이지 : https://www.happy.bg/en/

- 한국식당

○ 윤식당(Yoon)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2-963-0365
주소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가격	김치찌개 1인분 기준 15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4:00
휴무일	-
소개	불가리아 최초 한식당

○ 코리아 식당(Korea Restaurant)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99-912-404
주소	ul.Prof.Georgi Zlatarski 5
가격	김치찌개 1인분 기준 11~12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일요일 휴무
휴무일	-
소개	한식당

○ 컵앤롤 센터(Cup & Roll Center)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88-414-608
주소	Pedestrian subway Gallery NDK, 1142 Sofia
가격	라면 6달러 수준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
소개	라면, 김밥 등 분식 위주
비고	https://www.facebook.com/cupnrollcenter/

○ 비빔밥(The Bibimbap)

도시명	소피아
전화번호	+359-878-865-522
주소	1700 Studentski Kompleks, Sofia
가격	비빔밥 4달러 수준
영업시간	(평일) 10:30~22:00 / (주말) 11:00~21:30
휴무일	-
소개	비빔밥, 김밥 등 분식 위주
비고	https://www.facebook.com/thebibimbapsofia/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셰라톤 소피아 호텔 발칸(Sheraton Sofia Hotel Balkan)

도시명	소피아
주소	5 Sveta, Nedelya Sq., 1000 Sofia
전화번호	+359-2-981-6541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soflc-sofia-hotel-balkan-a-luxury-collection-hotel-sofia/?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120달러 수준
소개	시내 중심가

○ 마리넬라 호텔 소피아(Marinela Hotel Sofia)

도시명	소피아
주소	100 James Bourchier Boulevard1 1407 Sofia
전화번호	+359-2-969-2222
홈페이지	http://www.hotel-marinela.com/
숙박료	100달러 수준
소개	시내 인근지역

○ 노보텔(Novotel)

도시명	소피아
주소	115 N Tsarigradsko Shosse Blvd, 1784 Sofia
전화번호	+359-2-904-3000
홈페이지	http://novotel-sofia.hotel-ds.com/en/
숙박료	125달러 수준
소개	시내 중심 지역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

도시명	-
주소	-
전화번호	-
숙박료	-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폭행, 강도 등 강력 범죄는 빈발하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복잡한 시내에서 가방이나 지갑 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리에서 집시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유색 인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과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조직 범죄 집단 간의 총기 및 폭발 사건 등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유형업소, 술집 등).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소지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녁시간에는 가능한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сей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은 휴대 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수면제를 사용한 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는 음식물류는 먹으면 안 된다.

야간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 요금에 주의(요금 미터기 조작, 우회 등)해야 한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OK 또는 YELLOW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즘 OK 택시를 가장한 가짜택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Yellow(전화 : 91119) 택시와 OK(전화 : 9732121) 택시의 경우 출발지와 목적지를 전화로 알려주면 통상 5~20분 사이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Taxi me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하면 택시 이용 가능 현황이 뜨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 설명이 어려운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중동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여행하는 경

우 테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여행자들은 도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에서 내릴 때 귀중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열쇠를 그냥 차에 두고 내릴 경우 도둑 맞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열쇠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장소나 공공 이용 시설물에 CCTV 및 LED 가로등 설치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보편화돼 있지 않아 너무 늦은 밤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치안은 안정돼 있어 평상시 생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신고센터(112) 또는 경찰(116)에 먼저 연락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불가리아대사관 사건사고(24시간)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 장소, 연락한 사람의 연락처 등을 알리고 필요시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의 경우 분실 시 즉시 여행사 등에 연락을 해서 현지 경찰에 분실, 도난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인 방문이라면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표됨에 따라 여권을 분실 신고할 경우 분실된 여권을 되찾아도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사진 1매, 여권사본, 비자사본을 지참할 필요가 있다.

3) 응급 전화번호

- 경찰서: 166
- 교통경찰: 165
- 앰불런스: 150
- 화재: 160
- 구조신고센터: 112
- 전화 안내: 144(국내), 0123(국제)
- 공항 안내: 937-2121,
- 열차 안내: 31111
- 카드 분실 신고: 986-4544
- 교통사고 신고: 66-5060
- 주 불가리아 한국대사관 사건사고(24시간): +359-88-750-3270(휴대전화) *재외국민 보호 및 긴급상황 발생 시
- 영사 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보통 임차 계약은 1년 기준으로 하며, 1~2달 치의 보증금을 선불로 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현지에서 아파트 임차 시 인터넷 웹사이트 www.homes.bg, <http://www.bulgarianproperties.com> 또는 www.imot.bg를 이용해 희망하는 옵션에 따른 다양한 가격 오퍼를 확인할 수 있다. 소피아 내 신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어 집을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가리아의 EU 가입 기대감에 따라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 임차 시에는 난방 시스템이 중앙 난방인지, 전기를 이용한 난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가리아 전기 가격이 가파른 인상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난방이 없는 집의 경우, 겨울철 전기 히터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임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부분 임차계약서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현지어가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임차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택 임차 계약 시 불가리아어와 영어가 혼용된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불가리아어로 쓰인 계약서가 우선으로 유효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불합리한 이유로 보증금 반납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이 과거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납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사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향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전화

주요 통신사로는 A1, Viva com, Telenor 등이 있으며, 희망하는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전화 설치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한 시간에 유선전화 및 인터넷 설치 기사가 방문한다.

전압/플러그

불가리아는 230V/50Hz 플러그 사용 중으로 플러그 변환 어댑터 없이 한국 전자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은 보통 220V/60Hz으로 한국(60Hz)과 불가리아(50Hz) 간의 Hz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전자제품이 고장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양국 간의 Hz 차이를 줄여주는 '주파수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수

불가리아의 물은 질이 좋으나 배관 등 수도 시스템이 대부분 노후되어 수도물을 마실 경우 탈이 날 수도 있다. 일반 마트에서 생수 500mL 1병이 약 500원 수준으로 사 먹는 편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불가리아는 중고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가격도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 www.cars.bg
- www.mobile.bg
- www.auto.bg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인용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개인용으로 등록할 경우 영주권이 있으면 구매하기 훨씬 쉽다. 계약 시 지불한 차량 금액의 2.5%가 세금 및 계약 비용으로 지불된다. 차량 구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을 구매할 때 BGN 9,999 이하의 금액까지는 현금 지불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BGN 9,999는 약 EUR 5,110이다. 거래가 완료된 지 14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 주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통경찰국에 차량을 재등록해야 한다.

- 판매 및 구매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 1부 및 차량 등록 서류 2부
- 당해 연도 차량의 금액과 추가 사항
-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 기술검사문서 및 인증서

차량가격

- Volkswagen Golf 8 Life 신차 기준 약 25,000 USD 내외
- KN(구 기아) CEED 신차 기준 약 20,000 USD 내외

운전면허 취득

- 현지 운전면허 취득 방법

정식 운전학원에서 최소 40시간의 수업과 각 50분 이상의 31회의 실제 운전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수업 완료 후 운전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도로교통국에서 공식 시험을 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면 운전면허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거주지의 교통경찰국에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면허 종류별로 다르지만 최소 만 16세 이상이다. 운전면허를 신청한 사람은 건강 진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한국 면허증 교환

한국과 불가리아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불가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불가리아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 진단 결과(시력, 청력 등)와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불가리아 교통경찰국에 신청하면 2~3주 이내에 발급되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송부된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UniCredit Bulbank: UCB는 불가리아의 자산, 예금 및 대출, 주주 자본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소피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약 3,6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국 17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 First Investment Bank(FiBank): First Investment Bank(FiBank)는 불가리아의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광범위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3년에 설립된 FiBank는 불가리아의 은행 중 가장 큰 현지 소유 은행이다. 전국의 21개 지점과 68개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 United Bulgarian Bank: United Bulgarian Bank는 불가리아의 22개 상업 은행의 합병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1997년 민영화 된 UBB는 국내 및 국제 은행 업무 및 금융 운영에 대한 완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소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불가리아 전역에 190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계좌 개설 방법은 쉬우나 문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유효한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집주소(사무실 주소 가능)
-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 입금액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여러 번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은행 카드를 받으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은행 카드는 선택한 주소로 배달되거나 은행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The Anglo American School of Sofia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유아부~12학년까지
학비	홈페이지 Tuition Fee rate 참고 : https://www.aas-sofia.org/admissions/tuition-fees
홈페이지	http://www.aas-sofia.org
비고	영어 학교

◦ American College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8~12학년
학비	홈페이지 Tuition Fee rate 참고 : https://www.acs.bg/admissions/tuition-rates/
홈페이지	http://www.acs.bg

◦ American English Academy

도시명	소피아
커리큘럼	유치원~12학년

학비	홈페이지 Tuition Fee rate 참고: https://aeasofia.com/new/wp-content/uploads/2021/11/Tuition-Rates_11.2021.pdf
홈페이지	http://aeasofia.com/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 Tokuda

도시명	소피아
주소	51B Nikola Y. Vaptsarov Blvd., Sofia, 1407
전화번호	+359-2-403-4000
진료과목	응급병원, 종합병원
비고	- 홈페이지 : https://www.tokudabolnica.bg/en - 요청시 영어 진료 가능

◦ SOFIAMED

도시명	소피아
주소	Sofia 1797 16 GM Dimitrov Blvd.
전화번호	+359-2-465- 0000, 000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 홈페이지 : https://www.hospitalsofiamed.bg/ - 응급전화 : +359 890 123 150

◦ Pirogov

도시명	소피아
주소	UMBALSM "N. I. Pirogov" Sofia, 21 Totleben Blvd.
전화번호	+359-2-915-4411
진료과목	종합병원, 긴급/대형 수술
비고	- 홈페이지 : https://pirogov.eu/bg/ - 응급전화 : +359-2-9154-213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Paradise Center Sofia, Bulgaria

도시명	소피아
주소	100 Cherni Vrah Blvd
홈페이지	http://paradise-center.com/bg
비고	○ 이메일 : office@paradise-center.com ○ 전화 : +359-882-008-624 ○ 소피아에서 이용 고객이 가장 많은 쇼핑몰

○ The Mall

도시명	소피아
주소	115z Tsarigradsko shose Blvd, Sofia 1784
홈페이지	http://themall.bg/en/
비고	○ 이메일 : infodesk@themall.bg ○ 전화 : +359-2-878-7920

○ Sofia Ring Mall

도시명	소피아
주소	The ring road 214
홈페이지	https://www.sofiaring.bg/bg
비고	○ 이메일 : infodesk@ssrm-bg.com

○ Serdika Center

도시명	소피아
주소	NEPI Project one EOOD 48 Sitniakovo Blvd, 3rd floorSofia, 1505 Bulgaria
홈페이지	https://serdikacenter.bg/
비고	○ 이메일 : infodesk@serdikacenter.bg ○ 전화 : +359-2-495- 2121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식품점

◦ Metro

도시명	소피아
주소	Boulevard
취급 식료품	식품, 일용품, 잡화
비고	일일카드 또는 회원카드 발급 필수

◦ Fantastico

도시명	프랜차이즈
주소	-
취급 식료품	식품 위주, 불가리아 현지 식품 프랜차이즈 1위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Garitage Park Sports Center

도시명	소피아
주소	Garitage Park, 2 Donka Ushlinova Str., Office Bldg. 2, Sofia
홈페이지	https://sportscentergaritage.com/?lang=en
소개	최신식 스포츠 센터로 피트니스, 크로스핏, 수영장 등을 보유

◦ St.Sofia Golf

도시명	소피아
주소	VILLAGE OF RAVNO POLE, ELIN PELIN MUNICIPALITY
홈페이지	http://stsofiagolf.com/
소개	소피아에서 가장 가까운 골프장

〈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대체휴무)	2023-01-02	2023-01-02
크리스마스	2023-12-27	2023-12-27
해방절	2023-03-03	2023-03-03

부활절	2023-04-14	2023-04-14
부활절	2023-04-17	2023-04-17
근로자의날	2023-05-01	2023-05-01
성게오르기의날	2023-05-08	2023-05-08
슬라브 문자의 날	2023-05-24	2023-05-24
광복절	2023-08-15	2023-08-15
통일절	2023-09-06	2023-09-06
독립절	2023-09-22	2023-09-22
한글날	2023-10-09	2023-10-09
개천절	2023-10-03	2023-10-03
크리스마스	2023-12-25	2023-12-25
크리스마스	2023-12-26	2023-12-26
삼일절	2023-03-01	2023-03-01

〈자료원 : 주불가리아한국대사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소피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B100,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번호: +359-(0)2-969-5030
- 이메일: jiunj@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지하철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좌측으로 이동하면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역(Sofia Airport 역/4호선 종점)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역에서 Obelya 방면 지하철 을 탑승한다. (요금은 1유로 내외 소요)
- Sofia Airport역을 기준으로 9 정거장 후인 줄리오큐리역(Joliot Curie)에 하차 후 인터프레드(Interpred) 출구로 나와 5분 가량 도보로 이동하면 인터프레드 빌딩이 보이며, 무역관은 인터프레드 B동(인터프레드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 100호(한국 기준 2층/불가리아 기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 택시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우측으로 이동하면 도보 2분 거리에 OK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택시 기사에게 'Interpred'(인터프레드) 또는 'Joliot Curie'(줄리오큐리)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다. (10유로 내외 소요)
- 무역관은 인터프레드 B동(인터프레드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 100호(한국 기준 2층/불가리아 기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 * (참고) 일부 사설 택시가 외국인 대상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로가 있어,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인 OK택시(택시에 9732121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를 타거나, 현지 택시 앱인 'TAXI ME'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